

# 윤리와 정치의 관계

박기순 충북대 철학과 교수

## 1. 정치는 윤리에 기초해야 하는가?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대화편인 『국가』는 제목이 알려주는 것처럼 국가의 본성을 탐구하고 논의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 물음은 그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모름지기 정의의 원칙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의는 국가의 본성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롭지 않은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일까? 달리 말하면 국가는 무엇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플라톤에 따르면 그것은 ‘전체의 좋음’이다. 일부 구성원에게만 좋은 어떤 것을 국가가 실천한다면 그 국가는 정의로

운 국가가 아니다. 제도를 마련하고 법을 설립할 때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모두의 좋음이다. 물론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다양한 사람 혹은 집단 사이의 논쟁과 불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 주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다. 그의 철학 전체는 바로 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근본 동기로 해서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되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성을 가진 존재라면 결코 회의할 수 없는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기준과 관련하여 논쟁이나 불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기준을 논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일에 끼어들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말의 과잉으로, 말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불필요한 말들의 잔치로 규정한다.

옳은 것은 인식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한 그것은 불화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플라톤은 굳게 믿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원칙 혹은 사실이 존재한다는 믿음, 이것이 플라톤의 철학 사상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플라톤의 이러한 생각을 먼 과거의 것으로만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생각이 다양한 모습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희생자’ 혹은 ‘절대적 약자’의 프레임이 그것이다.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군가가 ‘정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회의 약자나 희생

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답한다면, 그는 본질적으로 플라톤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셈이다.

이 플라톤의 논리를 “윤리주의”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가 실현해야 할 어떤 절대적 윤리가 있다고 가정되는 한에서 정치의 본질은 윤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윤리주의 정치론은 정치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것이 정치의 봉쇄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 2. 윤리의 발생

플라톤의 논의에 따르면 최초의 국가에는 정의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에 국가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부들, 거주를 위한 집을 짓는 사람들, 입을 옷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신을 구두를 제작하는 사람들 등등. 국가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자기 생산물을 다른 필요한 것들과 교환함으로써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를 플라톤은 “돼지들의 나라”라고 부른다. 이 나라는 또한 건강한 나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의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는다.

정의의 문제, 즉 옳고 그름의 문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문제는 플라톤이 “호화로운 나라”라고 부른 곳에서 생긴다. 추론은 이렇게 진행된다. 국가에 필요한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 때로는 향연도 필요하지 않은가? 향연을 열자

면 연주자도 필요하고 가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 이야기꾼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꾼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자. 그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다. 어떤 이야기인가? 신들에 관한 이야기,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고 고민한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화공은 구두를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일도 고민하고 그것에 관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도 있고, 더 나아가 이야기꾼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일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 대해서, 나라일 전체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제화공은 구두도 만들지만 나라일에 참견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 상황을 나라가 질병에 걸린 상황으로 인식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플라톤에게 건강한 나라는 돼지들의 나라였다.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하지만 교환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는 상황, 즉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로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호화로운 나라로부터 질병이 발생한 것이다. 그 질병은 제화공이 자기 일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도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다. 여기에서 다른 일이란 전체에 관련된 일, 즉 정치다. 플라톤에 따르면, 제화공은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이지만 정치의 기술자는 아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정치를 논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 이렇게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라일에 대해 말하면 그 말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 말은 불화와 갈등을 만들

어 낼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말이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는다면, 나라 전체가 실제로는 올바른 의견이 아니라 단지 그럴듯해 보이는 의견에 기초해서 운영될 것이며, 이것은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다.

정의는 이러한 불의 혹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 등장한다. 의학이 질병에 의해 발생하고 발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플라톤은 질병의 핵심을 어떤 일에 자격과 권리가 없는 사람이 그러한 권리와 자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요컨대 정치가 권리와 몫의 배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권리와 몫을 배분하는 원칙이 존재하는데, 그 원칙이 붕괴되는 것을 일종의 질병으로 본 것이다. 제화공은 구두를 만드는 일에, 의사는 병을 고치는 일에, 군인은 나라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플라톤은 각자에게는 전체 속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 분할을 엄밀하게 따를 때 전체가 조화롭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정의의 기본 원칙으로 ‘각자는 자기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라는 원리를 제시한다. 이로부터 생산자들의 제1의 덕목은 “절제”가 된다. 절제는 다름 아닌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모든 시간을 병을 연구하고 고치는 일에 할애해야 하고, 일하는 곳을 벗어나서 정치의 공간인 아고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윤리”라는 말의 고유한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리를 뜻하는 영어의 “ethics”는 그리스어 “ethos”에서 온 말이다. 그런데 이 “에토스”라는 어원에는 주거지라는 뜻이 있다. 따라서 에토스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 합당한 존재 방식 혹은 삶의 방식을 뜻한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머무는 것, 그 자리에 합당한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윤리의 본래의 뜻이 된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플라톤 철학이다.

### 3. 윤리에 깃들여 있는 배제의 논리

그런데 생각해 보자. 제화공은 어떻게 제화공이 되었을까? 구두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 구두 만드는 일에 자질이 남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취미와 재능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그가 많은 일을 해 보고 경험해 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개의 경우 그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직업을 구해서 일해야 한다. 그러니 그가 구두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밀히 말해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마침 그러한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의 선택은 우연의 산물이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 우연의 산물을 필연으로 만든다. 그는 제화공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아니 그는 제화공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유일하고 가능한 능력은 구두를 만드는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연을 필연으로 전화시키면서 플라톤이 의도하는 것은 질서, 더 정확히 말하면 분할과 경계의 논리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현재의 분할과 질서가 우연의 산물이라면, 그 질서는 언제든지 바뀌고 수정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가침의 어떤 것이 된다. 그

것을 흐트리고 해체하는 것은 죄악이 되고 질병이 된다.

이렇게 보면 플라톤의 윤리, 정의의 원리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논리나 다름없다. 플라톤은 각자가 자기 일에만 열중하는 것이 전체의 좋음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비판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관점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입장이다. 그는 제화공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막으려 한다. 그의 본성이 그 일에만 적합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의 결과다. 그러니 그는 구두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나라 전체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가 훌륭한 제화공이라면, 그는 그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좋은 구두를 만드는 일과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는 어떤 공통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은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기술을 함축한다.

플라톤은 이 가능성, 한 가지 일에서 배운 것을 다른 일, 특히 정치로 연장하고 확장함으로써 경계를 지우려는 이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위계적 질서와 분할의 유지가 그 이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플라톤의 철학, 그의 윤리적 원칙은 정치의 원리와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특정한 정치적 관점이 그의 윤리와 철학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치의 봉쇄, 다른 목소리, 다른 가치 판단의 봉쇄다.

#### 4. '이기에'와 '이지만'

플라톤이 보여 주는 교훈은 어떤 윤리나 도덕을 정치의 원리로 내세우는 논리는 역설적으로 정치를 봉쇄하는 논리와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 논리의 현대적 버전으로 절대적 약자와 희생자의 논리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논리는 절대적 타자 혹은 약자라는 사회학적 규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연대라는 타자의 도덕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논리에 합류한다. 즉 사실과 당위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두 논리는 만나고 있다. 플라톤의 논리에서는, 제화공은 제화공이기에 다른 것을 할 권리와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의 권리는 그의 존재로부터 규정되고 제한된다는 점에서, 존재와 권리 혹은 자격 사이에 일치가 존재한다. 타자의 논리에서는, 절대적 희생자이자 타자라는 바로 그 존재적 규정으로부터 조건 없는 연대 책임이라는 도덕이 따라 나온다는 점에서 존재와 당위 사이의 합치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정치를 불가능하게 한다. 왜 그러한가? 정치란 권리와 몫의 분배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갈등하고 불화한다. 당신은 노동자 '이기에', 당신은 외국인 '이기에', 당신은 비정규직 '이기에', 당신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고 저런 권리가 없다고 말할 때, 여기에는 항상 존재 규정과 그것에서 끌어낸 권리와 몫 사이의 일치가 존재한다. 이 일치의 논리로 항상 지배계급은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고 유지해 왔다. 정치는 바로 이 존재와 권리(가치판단) 사이의 일치라는 논리를 비판하는 것에서 성립한다. 우리는 노동자 '이지만', 우리는 외국인 '이지만', 우리는 비정



규칙 ‘이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정치의 논리란 항상 이러한 담론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그것은 ‘이기에’의 논리를 거부하는 ‘이지만’의 논리다.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혹은 저런 위치와 자리에 있기에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권리와 몫이 있다고 주장될 때, 사회는 플라톤처럼 그것을 정당화하는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 내는 철학자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윤리는 지배의 논리 하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의 기능은 정치를 봉쇄하는 것이다. 우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윤리적 원칙이 이것이기 때문에 사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권리와 몫을 이러한 방식으로 할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된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간과하고 있는 것은 윤리의 이러한 기능은 현대의 타자의 윤리,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절대적 희생자와 타자를 위한 윤리의 경우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배계급의 이해득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타자의 윤리가 정치가 점점 더 소멸해가는 시대에 대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찬가지로 정치를 무화하고 봉쇄하는 논리와 다름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이지만’이 아니라 ‘이기에’의 논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자의 윤리가 함축하는 정치는 기껏해야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할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다른 세계를 만들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정치가 될 수 없다. 다른 질서와 세계의 구축 가능성, 즉 정치는 ‘이지만’의 논리로부터만 가능하다. 그것은 하나의 존재가 다르게 존재할 가능성, 다른 것이 될 가능성을 열어 놓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시대